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누가복음 23:39-43  
2026년 3월 29일 오전 11시

## 십자가에서 알아본 왕

< 주역 도우소서 >

성서 시대 겉옷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 겉옷이 포함되었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수 7:21). 아간은 겉옷과 은금을 훔쳤는데, 겉옷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당시 귀한 물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겉옷이 이와 같이 고가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겉옷은 담보로 제공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출 22:26).

예수님의 겉옷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눠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요 19:23). 보통 4 명의 군인들이 십자가 형을 집행합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한 명은 오른손, 한 명은 왼손, 한 명은 다리를 고정시켜 몸부림을 억제하고 정확한 위치에 나머지는 한 명이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달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 고정시킵니다. 이러한 수고의 댓가는 죄수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값나가는 겉옷을 벗어나서 길에 떠는 행위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왕하 9:13). 예후의 동료 장군들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마 21:8). 겉옷이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요 12:13).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 1.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였습니다. 호산나는 '구하여 주십시오!'를 뜻하는 히브리어였으나, 점차 구원자, 메시아를 맞이하는 신앙 고백과 찬양의 감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왕으로 환영한 반면,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마 21:10-11). 이러한 이해가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눅 13:33).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타락한 예루살렘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마 23:37).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원하였으나, 예루살렘은 회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요 15:19).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할 대제사장들 입에서 나온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유일무이한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할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한 신앙적 배교였습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지칭하였습니다.

하나 빌라도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보신주의에 급급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정치적 압력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눅 23:24-25). 그래서 폭동과 살인죄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자리에 무죄한 예수님을 대신 넣은 것입니다.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눅 23:38). 그리고 예수님께 왕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마 27:29). 그러나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진 금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어 만든 가시관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는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왕좌에 앉는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바라바와 함께 붙잡힌 것으로 보인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눅 23:3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는 해골이라 불리던 곳으로 지형이 해골 모양입니다. 해골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Calvaria)입니다. 라틴어 칼바리아가 영어로 Calvary(칼버리)가 되었고, 한국어로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해골, 골고다, 갈보리 언덕은 예루살렘 성밖이었습니다.

## 2. 십자가에서 드러난 참된 왕권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사형수로 예루살렘에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일 뿐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왕권은 ‘5 일 천하’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시므리의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칠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 일 동안 왕이 되니라”(왕상 16:15).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 5 대 왕인 시므리는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했으나 7 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현대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함으로 시므리보다 더 짧은 5 일 천하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5 일 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날 영원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막 15:32). 처음에는 로마 군인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 죄 가운데 살던 자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43 절). 낙원은 헬라어로 παράδεισος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Paradise 입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생명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이러한 낙원에 들어갈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죽은 후 낙원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후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죽은 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죽은 성도가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잠시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지 않고 낙원에 다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고후 12:4).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 어느 날 낙원에 이끌려 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 12:2).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로부터 14년 전이면 아직 바울이 선교사나 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입니다. 아마도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사역지는 없는 무임 사도였을 때 낙원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 3.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변화된 인생

성경에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로 구름이 있고 새가 나는 영역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영역이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최고 하늘로 낙원입니다. 낙원이 하늘에 있다면, 천국은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 땅에서 시작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후 땅에서 완성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2). 사도 바울은 낙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류의 유튜브 동영상이나 간증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들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현대 오늘 본문에는 일평생 악을 행한 사람이 낙원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눅 23:34).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테반의 순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현대 스테반은 죽어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알아본 왕(눅 23:39-43)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60). 스테반의 이러한 행동은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는 내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스테반이 사도 바울을 말로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전도한 사람은 스테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회심도 비슷합니다.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행동은 로마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 울부짖지 않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큰 충격과 질문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회심을 합니다.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눅 23:41).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서 왕이심을 믿는 순간, 그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며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간 것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낙원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